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임정기/편집인 : 김동규/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전화 02)798-3807/전송 02)794-3148 www.kamje.or.kr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본 협회의 단체 회원은 2008년 5월 현재 168 학술지(의학회의 협회 및 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 125, 의과대학 학술지 12, 기타 학회 학술지 31)이며, 개인회원은 38명이다.

또한 특별회원은 지난 3월 신규로 가입한(주)누리미디어를 포함하여 광문출판사, 아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의학문회사

(메드랑), 중앙문화사, 진기획, 최신의학사, Google Inc., JOY DESIGN, KISTI, NHN(주)로 총 1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 학술지편집인협의회 사무국(Tel: 798-3807, Fax: 794-3148)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회장 취임 인사

올 3월 의편협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된 임정기 교수(서울의대 영상의학)의 취임인사를 심는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 임정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협으로 약칭)는 1996년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편집인의 자질 향상을 목표로 창설된 이래로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역대 회장님, 임원, 각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의 지도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이고 헌신적 노력, 그리고 회원 학회지편집인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도움의 결과로 오늘날의 의편협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의편협의 기능은 현존하는 어느 국제적 의학학술지편집인 협의회보다 광범위하고 실용적입니다. 의편협은 의학학술지 평가 과정을 통하여 KoreaMed 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미국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에서 관장하는 PubMed와 같습니다. 현재 의학 관련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 168개 학술지를 단체 회원으로 승인하였고, 이중 131종 학술지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영문서지정보와 초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54종 학술지는 논문의 전문(full text) 보기를 위한 학술지의 web-site로의 link-out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레코드입력 건수가 139,593건을 돌파하였으며, 국내외의 접속빈도가 매일 평균 2,408회이고 이중 해외로부터의 접속은 60% 이상으로 추정하며, 140 개 국가로부터 접속이 되고 있어 세계적인 DB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ubMed Central XML에 기반을 둔 KoreaMed Synapse를 개발하여 국내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초로 DOI/CrossRef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참고문헌을 통하여 전 세계 학술지와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궁극적으로 회원 학술지의 인지도와 피인용

기회를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편협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편집 관련 인사의 교육입니다. 최근 학술지 편집과 정보 관리 분야의 필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회원 학술지 집행부에 눈에 띄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 확보와 정보 관리의 수월성이 곧 학술지의 발전으로 이어짐을 주위의 학술지를 통하여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월의 "Manuscript editor"를 위한 workshop 및 "편집인 아카데미"는 큰 호응을 얻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향상시켜 갈 것입니다.

의편협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출판윤리에 관하여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연구자에게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의편협에서는 금년 초에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제하의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학술지 평가 항목 중 투고규정에 연구윤리 조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편협 제정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으면 인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의편협의 출판윤리위원회에서는 의학분야의 출판윤리에 관한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이 분야의 교육과 전문가 자문의 역할을 확대하여 갈 것입니다.

의편협의 또 다른 역할은 국제적 리더십 확보와 인근 지역 국가에 지식 정보에 관한 봉사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태평양지역 Index Medicus (WPRIM)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WHO의 서태평양지역기구(WPRO)와 협력하여 KoreaMed 등재학술지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해당 지역 국가의 학술지 논문의 영문 초록 정보 DB 구축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APAME)를 대한의학회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태동 시키는데 주역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계속)

이러한 사업들은 미국의 국립의학도서관 (NLM) 이 PubMed를 통하여 세계에 의학 지식정보의 보급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편집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확대하여 온 원천적 힘은 의편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헌신적 봉사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러한 훌륭한 단체를 창립하고 발전을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의 역할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참여와 도움을 바랍니다. 끝



2008년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2008년도 정기총회가 3월 25일(화)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5기 의편집을 이끌어 갈 새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Intestinal Research를 비롯한 3개의 학술지를 단체회원으로 인준하고 KISTI와(주)누리미디어를 특별회원으로 인준하였다.

또한 의편집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국제 학술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이 위원회를 통해 APAME(아시아태평양의학 학술지편집인협의회)와 WPRIM(아시아태평양지역 Index Medicus)의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의편집 재정 확충을 위해 단체회원의 연회비를 소폭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무료로 해오던 KoreaMed XML 가공비를 해당 학회에서 부담하는 원칙을 결의하였다.

총회 후에는 세계적인 출판사인 Wiley-Blackwell와 공동으로 『Publishing Academic Journals for the International Audience』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학술지 편집인들에게 학술지 국제화의 큰 흐름을 소개하였다.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Manuscript Editor 교육 실시



최근 편집인들의 학술지 질적 향상 및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 협의회에서는 국내 의학계열 학술지 편집에 참여하는 편집인 또는 편집위원을 대상으로 의학학술지의 발전 및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편집인 전문 교육과정(2월 18-20일)을 개설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의편집 회원 학회 60여명의 편집인들이 참여하였으며, 강의와 실습 뿐만 아니라 모둠학습을 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TBL(Team-based Learning)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학회와 출판사의 editor, 의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원고편집업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Manuscript Editor 교육과정을 5일간(2월 18~22일) 개최하였다.

두 과정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강의 프로그램과 자료는 의편집 홈페이지(kamje.or.kr) '소식지/Workshop 자료' 안에 올려져 있다.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창립 총회 보고



5월 4일부터 5일까지 COEX에서 APAME(아시아태평양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아시아지역의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학술활동, 인적교류, 교육사업, 학술지 평가사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을 통하여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학술지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다

12개국으로 출범한 APAME의 초대 회장으로는 함창국 교수

(전 의편협 회장)가 그리고 부회장은 John Arokiasamy (말레이시아)가 선출되었고 사무총장은 서정욱 교수(서울 의대 병리학)가 선임되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APAME의 사무국을 회장이 있는 한국에 두기로 결정하였고 5월 6일 주수호 의협회장 김건상 의학회장 임정기 의편협 회장 함창국 APAME 초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현관에서 현판식이 거행되었다.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발간

본 협의회에서는 출판윤리위원회(위원장 함창국)가 중심이 되어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의 개념에서부터 위반행위의 원인과 위반에 대한 처리까지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 연구, 출판윤리의 확립과 저널의 질적인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지평가 시 윤리항목에서 학회가 별도의 윤리규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의편협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규정에 기술한다면 이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의편협 홈페이지(kamj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학 학술지 SCI 등재 소식

최근 2종의 KoreaMed 학술지가 SCI에 등재되었다.

- 'Korean Journal of Pathology' (대한병리학회)
-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and Pharmacology' (대한생리학회와 대한약리학회 공동 발행)

이로써 총 SCI에 등재된 국내 의학학술지는 12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Annals of Dermatology'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지' 발행)
-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지' 발행)

-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대한의학회)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대한신경외과학회)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대한수의학회)
- 'Korean Journal of Laboratory Medicine' (대한진단검사의학회)
-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대한기생충학회)
- 'Korean Journal of Pathology' (대한병리학회)
-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and Pharmacology' (대한생리학회와 대한약리학회 공동 발행)
- 'Korean Journal of Radiology' (대한영상의학회)
- 'Yonsei Medical Journal' (연세대의대)



제 5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임원 및 위원회 구성

제5기 의편협을 이끌어 갈 새 집행진(임기: 2008.4.1 ~ 2011.3.31)이 구성되었다. 3월 25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에 임정기 교수(서울의대 영상의학), 부회장에 서창욱(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가 선출되었고 임원 및 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의편협 초대회장에는 박찬규 교수(연세의대 산부인과학), 제2대 회장은 함창국 교수(한양의대 영상의학), 제3대 회장은 조승열 교수(성균관대의대 기생충학), 제4대 회장은 박찬일 교수(연세의대 병리학)가 회장직을 수행했다.

임원

직 위	성 명	소 속
회 장	임 정 기	서울의대 영상의학
부 회 장	서 창 욱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감 사	조 수 헌	서울의대 예방의학
감 사	김 수 념	건국대의대 산부인과학
무임소 임원	나 은 우	아주대의대 재활의학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홍 성 태
	간 사	오 세 정
정보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수 영
	간 사	조 혜 민 Manuscript Editor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한 동 수
	간 사	명 승 재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동 규
	간 사	김 재 응
출판윤리위원회	위원장	함 창 국
	간 사	배 종 우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서 정 욱
	간 사	정 해 관

기획평가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간 사	오세정	가톨릭의대 외과학
위 원	김지수	서울의대 신경과학
위 원	나은우	아주대의대 재활의학
위 원	박종원	연세의대 내과학
위 원	이령아	이화대의대 외과학
위 원	이성구	울산의대 내과학
위 원	이춘기	서울의대 정형외과학
위 원	조동숙	을지대 간호학

운영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김동규	서울의대 신경외과학
간 사	김재응	서울의대 신경외과학
위 원	김병호	경희대의대 내과학
위 원	서태석	가톨릭의대 의학물리
위 원	오병훈	연세의대 정신과학
위 원	이경수	성균관대의대 영상의학
위 원	채성원	고려의대 이비인후과학
위 원	최민호	서울의대 기생충학

출판윤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함창국	한양의대 영상의학
간 사	배종우	경희대의대 소아과학
위 원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 원	김옥주	서울의대 의료윤리
위 원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위 원	서창욱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위 원	임정기	서울의대 영상의학
위 원	조승열	성균관대의대 기생충학
위 원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위 원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정보관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간 사	조혜민	Manuscript Editor
위 원	박명재	경희대의대 내과학
위 원	이령아	이화대의대 외과학
위 원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위 원	정소나	가톨릭의대 도서관

국제협력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서정욱	서울의대 병리학
간 사	정해관	성균관대의대 사회의학
위 원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위 원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 원	윤호중	가톨릭의대 내과학

교육연수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한동수	한양의대 내과학
간 사	명승재	울산의대 내과학
위 원	구자욱	인체의대 소아과학
위 원	박명재	경희대의대 내과학
위 원	이상오	울산의대 감염내과학
위 원	조혜민	Manuscript Editor